

현안^과 과제

- 한·중 정상회담 의미와 과제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기대된다!



1. 방중 일정과 의미

- 오는 6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있는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전망
 - **주요 일정**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6월 27~30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민 자격으로 방문, 6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후 국민만찬에 참석할 예정, 이후 28일에는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올 3월 새로 취임한 중국 새 지도부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
 - **주요 의제** : 이번 방중 기간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 등 경제·산업 분야와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전망
 - **의미** : 올해는 한중 수교 21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 모두 신지도부가 탄생하는 등 상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실질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민 자격 방문은 과거 정부의 미국→일본→중국 차례의 순방 관례를 깬 것으로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외교 문제 뿐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와 날로 관계가 심화되는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에서도 주요 전기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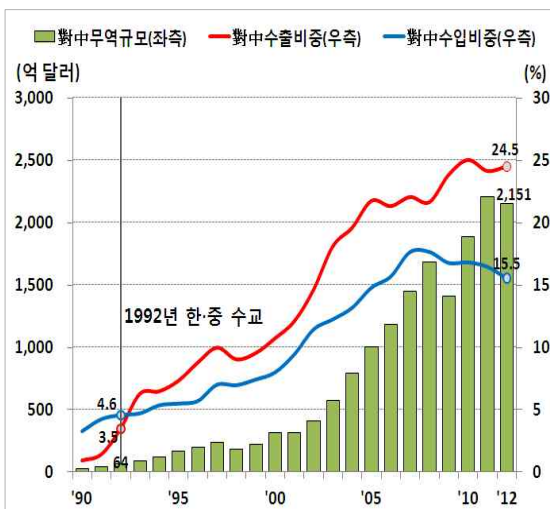
< 역대 대통령 방중 시 주요 의제와 성과 >

구분	양국 관계	주요 의제
김대중 대통령	‘선린우호 관계’→ ‘협력 동반자관계’	- 산업, 과학기술,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 합의 - 중국의 WTO 조기 가입 지지 - 4자회담 추진 의견 조율
노무현 대통령	‘협력 동반자관계’→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	- 차세대 IT, 서부 대개발 등 10대 협력사업 선정·협약 - 한반도 비핵화 지위 확보
이명박 대통령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 한중 FTA 추진 검토 합의 - 6자회담 관련 균형적 이행 인식 공유
박근혜 대통령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기대	- 주요 예상 의제 - 경제·산업 등 포괄적 협력 증진 방안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관한 양국 간 협력방안

2.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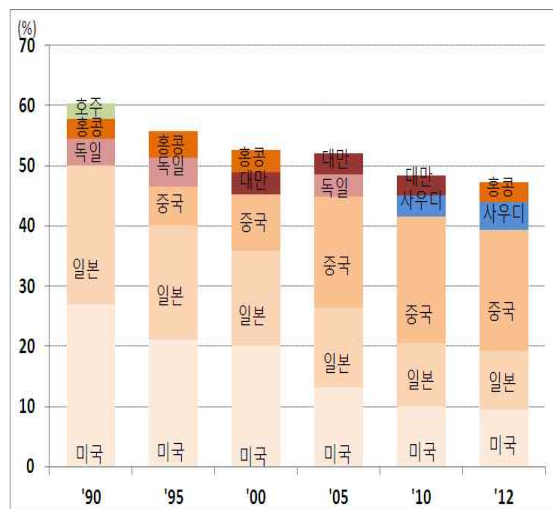
- (양국 경제 교류 지속 확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와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
- (한중 무역) 對中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
 -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19%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 1992~2012년 사이, 양국 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의 64억 달러에서 2012년 2,151억 달러로, 약 34배 증가
 - 동기간,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총액 중 對中 비중은 1992년의 3.5%, 4.6%에서 2012년 24.5%, 15.5%로 대폭 확대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 20.2%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1990년 7위 교역 대상국에서 2004년부터는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동기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위 교역 대상국에서 4위로 부상

<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상위 5개 무역국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中 수출 품목은 철강, 소재 중심에서 IT기기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
 - 1992년 철강관의 수출규모는 4.2억 달러로 對中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 차지한 반면, 2012년에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가장 많은 약 2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對中 수출규모의 약 15%를 차지
 - 최근에는 석유·화학 관련 제품 수출 비중도 급상승

<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위	1992년		2000년		2012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철강관	4.2	석유제품	16.8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202.9
2	합성수지	3.0	합성수지	15.8	반도체	157.8
3	선재봉강 및 철근	2.4	전자관	12.3	석유제품	110.0
4	가죽	1.4	철강관	11.0	합성수지	73.8
5	인조섬유	1.3	가죽	7.6	전자응용기기	45.4
6	인조장 섬유직물	1.0	컴퓨터	7.4	석유화학 중간 원료	44.0
7	종이제품	0.9	기타 직물	6.0	자동차부품	42.8
8	섬유 및 화학기계	0.8	반도체	5.8	무선통신기기	38.1
9	석유제품	0.7	석유화학섬유원료	5.7	기초유분	36.7
10	기타 석유 화학제품	0.7	석유화학중간원료	5.1	철강관	32.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분류 기준임.

- 한국의 對中 수입 품목은 식물성 물질, 섬유, 시멘트 등 원료 중심에서 반도체, IT기기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
 - 1992년 식물성 물질의 수입 규모가 6.6억 달러로 對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 한편, 2012년에는 반도체의 수입규모가 60.5억 달러로 가장 많음

< 한국의 對中 주요 수입품목 >

(단위 : 억 달러)

순위	1992년		2000년		2012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식물성물질	6.6	의류	8.7	반도체	60.5
2	원유	2.2	컴퓨터	8.2	컴퓨터	56.1
3	인조단 섬유직물	2.2	석탄	7.2	철강관	45.6
4	시멘트	2.1	식물성물질	6.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7.3
5	석탄	2.1	반도체	6.3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34.4
6	견직물	1.8	정밀화학원료	3.9	의류	31.0
7	곡식류	1.4	합금철선철및고철	3.8	정밀화학원료	28.8
8	정밀화학원료	1.1	음향기기	3.5	무선통신기기	28.4
9	면직물	1.0	석유제품	3.2	기구부품	19.8
10	기타농산물	1.0	어류	3.1	전선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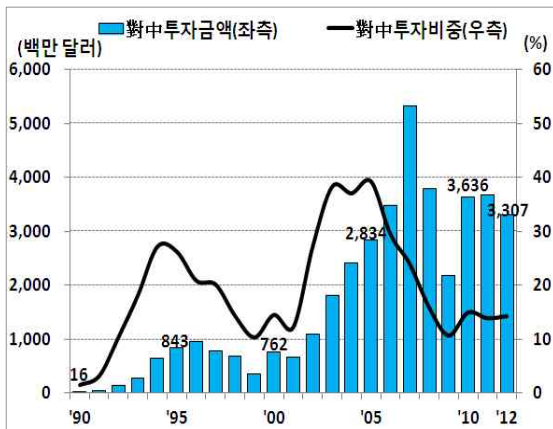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분류 기준임.

○ (한·중 직접투자) 중국은 한국의 네번째로 큰 직접투자 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다섯번째로 큰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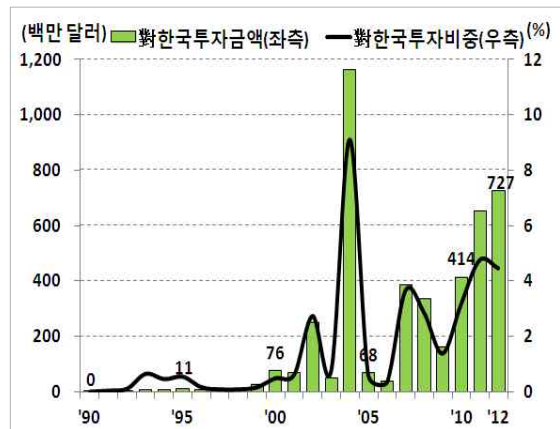
-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회복
 -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1992년의 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33억 달러로, 연평균 17%의 속도로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도 1992년 1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약 7.3억 달러로 급속히 확대

<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추이 >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



자료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인적교류) 양국 간 인적교류도 한·중 수교 이후 약 80배 증가

- 양국간 인적교류 규모는 1992년 9만 명에서 2012년 691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
- 2012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수는 407만 명,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수는 284만 명으로 집계됨

< 한·중 간 상대국 입국자수 추이 >

(단위 : 만 명)

연도	'92	'95	'98	'01	'04	'07	'10	'12
한국 → 중국	0	53	63	168	284	478	408	407
중국 → 한국	9	18	21	48	63	107	188	284
계	9	71	84	216	347	585	595	691

자료 : 한국관광공사, 中國國家旅游局.

주 : 입국자수에는 관광, 비즈니스, 친척방문, 유학 등 목적으로 한 입국자수 포함.

3. 한·중 경제 교류 현안

① 한·중 FTA

- 한·중 정부간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양국간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나, 개방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한·중 FTA 논의는 8년 만에 정부 간 협상으로 발전
 - 2004년 9월 한·중간 민간 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후 약 3년만인 2007년 3월부터 한·중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 이어서 2012년 1월 9일 한·중 간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후,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5차 협상이 진행
 - 양국 간 경제 협력은 기존 對中 부품·소재 수출 등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수평적 분업관계 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 2012년 현재, 한국의 전체 對中 수출 대비 對中 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약 64%로 지난 1995년 42%보다 1.5배 증가, 對中 가공무역 의존도 지속
 - 하지만, 최근 중국의 친환경 경제 조성으로 가공무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대중 교역의 전환점 도래
 - 한·중 FTA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국내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동시 모색
 - 또, 상품·투자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 분야의 의제화도 고려

< 한국의 對中 부품·소재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5	2000	2005	2012
전체 對中 수출(A)	91	185	619	1,343
對中 부품소재 수출(B)	38	101	376	865
B/A(%)	41.7	54.6	60.7	64.4

자료 : 한국무역협회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분석.

② 한·중 금융 협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중간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한·중 양국 간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의 진출이 최근 증가
 - 지난 2006년 중국의 외국계자본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이후 한·중 간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 진출이 확대
- 최근에는 한·중간 통화스왑 추진 등 양국 간 통화거래도 확대
 - 한·중 간 통화스왑 규모는 2008년 1,800억 위안으로 시작, 2011년 말 3,600억 위안(64조)으로 2배 확대하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무역결제에 사용할 준비 중
 - 더욱이 2012년 현재, 중국계 자금의 국내 유입도 빠르게 증가
- 다만 금융부문에서 한·중간 실물부문 교류는 증가하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높아 교류확대에 제약으로 작용
 - 한국의 금융기관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QFII 자격 등을 통해 가능한 실정
 -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QDII 자격 등 행정 허가가 필요
 - 또, 중장기적으로 자국통화를 활용한 결제제도의 도입 및 환율 협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
 - 더욱이 원화와 위안화가 양국간 결제통화로 활용하고 일정 규모 내에서 상호 유통하다가 점차 규모를 확대한다면 지역적 국제화를 이루어 통화 리스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큼

< 한·중 금융기관 상호 진출 현황 >

구분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은행	30여개 지점	5개 지점
보험	4개 업체	-
증권	10개 사무소	2개 대표사무소

자료 : 내·외신 자료 종합.

< 중국계 자금의 국내 유입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상장채권, 상장주식 보유규모 합.

③ 한·중 최첨단 과학 혁신 기술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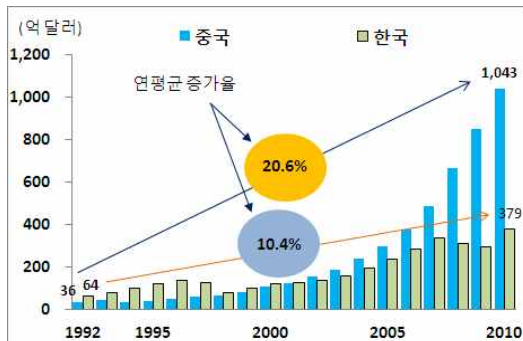
○ 최근 중국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 강화 등 고부가 최첨단 산업 구조재편이 가속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한·중 간 교류 확대 필요

- 중국은 그동안 R&D 투자 확대뿐 아니라, 특허출원 및 과학기술 논문 수 급증 등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 역량 강화

· 2012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각각 1,043억 달러, 380억 달러로 중국이 한국의 약 3배 수준에 이릅니다

· 연구원 1인당 특허 출원 건수 및 논문 편수도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압도

< 한·중 R&D 투자 비중 >



자료 : OECD, 中國科技統計.

<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

(단위 : 천 건, 천 편)

시기	특허		논문	
	중국	한국	중국	한국
1995	18.7	78.5	13.1	5.9
2000	51.9	102.0	30.5	13.5
2005	173.3	160.9	68.2	27.8
2010	391.2	170.1	143.8	39.8

자료 : 일본과학기술지표(2012), 中國科技統計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와 열위 분야를 분류, 전략적 기술 교류 추진이 필요

·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등 한국의 우위 분야와 우주·항공 등 열위 분야를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 교류 확대 추진

< 7대 주요 중점과학기술의 분야별 한·중 기술 격차 비교 >

(단위 : 년)

구분	한국			중국		
	2010	2008	격차축소(2008-2010)	2010	2008	격차축소(2008-2010)
전자·정보·통신	3.0	3.8	0.8	5.4	7.1	1.7
의료	6.4	8.1	1.7	8.9	10.5	1.6
바이오	5.6	7.3	1.7	7.8	9.8	2.0
기계·제조·공정	4.8	6.1	1.3	8.1	9.5	1.4
에너지·자원	5.8	6.6	0.8	8.2	9.1	0.9
우주·항공·해양	7.1	7.4	0.3	7.1	8.4	1.3
나노·소재	5.7	6.4	0.7	8.1	8.5	0.4

자료 : 국가 R&D 기술산업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상기 수치는 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년 단위로 산출한 값임.

④ 한·중 문화 및 인적 교류

○ 중국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국내 문화 수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해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 양국 간 문화 교류 증가 속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

- 한류 등 對中 콘텐츠 수출은 2009년 5억 8,100만 달러에서 2011년 11억 1,900 달러로 약 1.9배 증가
- 한편, 국내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00년 44만 명에서 2012년 284만 명으로 약 6.5배 증가, 중국내 한국인 입국자 수도 동기간에 134만 명에서 40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제적 중국인 학생 수는 2005년에 9,000명에서 2012년 4.2만 명으로 4.7배 증가
-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은 동기간에 5.4만 명에서 6.3만 명으로 1.2배 증가

- 콘텐츠 산업은 양국 간의 콘텐츠 시장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

- 또,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의 현지 취업, 비자 절차 간소화,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양국 간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존재

< 對中 콘텐츠 수출입 추이 >

(백 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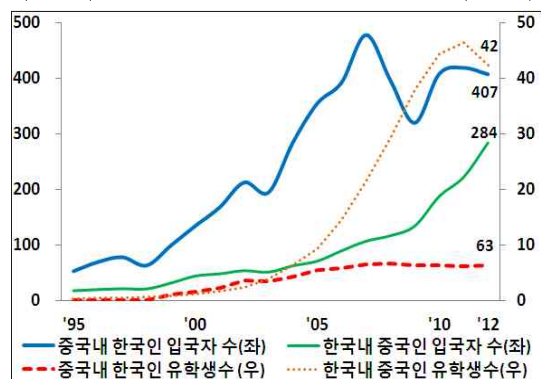


자료 : 콘텐츠 진흥원.
주 : 콘텐츠 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으로 구성.

< 한국과 중국 인적교류 현황 >

(만 명)

(천 명)



자료 : 한국관광공사 DB, CEIC, 교육통계연보, 中國高等教育學會.
주 : 고등교육기관 제적 중국인 수 기준(동포제외).

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관련 양국 간 협력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공유가 시급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안보와 교류 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을 목표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차원의 신뢰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
 -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중미, 남북중 등 다자대화체를 활용하는 한반도 신뢰 구축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인식 공유
 - 북한이 6자회담의 틀로 돌아와 비핵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한편,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4개국 경제 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동북아개발은행으로 전환하고 향후 북한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 고려
 -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통해 개성공단·황금평 등 북한특구지역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 협의 고려
 - 이를 통해 북한을 국제경제질서에 편입시켜 개방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 기대

4. 시사점

- 첫째, 한·중 FTA 협상은 단순히 민감산업 협상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향후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중·장기적 안목으로 산업 분야별 단계별 협상 제시
 - 한·중 FTA 논의는 거의 10년이 되어가나, 양국 간 민감산업에 대한 입장차로 실질적인 협상으로 발전이 지연되는 상황
 - 한·중 FTA 효과는 단기적 교역증대, 경제성장 촉진 등이 기대되나, 농수산물 등 산업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중국과 FTA 협상은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지역과 뉴질랜드 등 선진국 등으로 분류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단계를 모색해 단계별 협상 제시 필요
- 둘째,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에 맞춰, 한·중간 통화 스왑 확대,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등을 통해 중국 금융시장 개방 기회 활용
 -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 금융부문 교류 확대에 대한 한·중 FTA 협상 등을 활용해 한국이 중국의 역외 금융 및 무역 허브로 부상할 기회 활용
 - 또, 향후 중국의 위안화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될 경우를 대비, 통화 스왑 확대,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등을 통해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
- 셋째,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화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한 활용방안 모색
 - 우주, 해양 등 거대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상태이므로 첨단과학 기술 분야의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하고, 우주·항공·해양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협력과 지원도 추진
 -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연구, 우수 인재 교류, 협동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교류 확대

- 넷째, 양국간 문화 콘텐츠 산업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도 대폭 확대 및 강화 필요
 - 중국 내 한류, K-POP 등 한국의 주력 문화 콘텐츠 분야의 지속성을 위해 규제 장벽 완화뿐 아니라, 그 밖의 콘텐츠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마련 시급
 - 한·중 양국 정부 차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유학생 관리지원, 학술교류 및 교환 프로그램 지원체제 구축 등의 필요

- 다섯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와 협력 도출
 -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가진 만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한중간 협력 체제 공고화 합의 필요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 강조와 한미중 전략대화 등 북핵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체제 강화 협의
 - 동북아개발은행, 한·중 FTA 및 한·중·일 FTA를 통한 개성공단·황금평 등 북한특구지역의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등을 통해 북한의 동북아 지역협력 참여 유도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2072-6225)
천용찬 연구원(junius73@hri.co.kr, 2072-6274) 외